진정한 공양은 재물 아닌 마음



新 불교사자성어

⑥ 빈자일등(貧者一燈)

'가난한 자의 등불(貧者一燈)'이라는 뜻이다. 가난한 여인이 정성스럽게 올린 초라한 등불이 부자들이 올린 화려한 등불보다 더 밝았다는 뜻에서 '빈여일등(貧女一燈)'이라고도 한다. 현명함과 어리석은 행동을 비유한 경전인 〈현우경(賢愚經)〉 '빈녀(貧女) 난타품'에 있는 고사성어이다.

줄거리는 이렇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기원정사는 고대 인도 코살라국의 수도인 사위성(舍衛城, 사밧티; 슈라바스티) 남쪽 약 1.6km 지점에 있었던 사원이었다.

기원정사는 '기수급고독원'이라고도 하며 왕사성 죽림정사와 함께 당시 가장 규모가 컸던 2대 사원이었다. 부처님께서 교화 기간 45년 중 약 24년을 머문 곳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많은 불교 경전들을 설하셨다.

사위성 안에는 '난타'라고 하는 가난한 여인, 걸인 여성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가난하여 구걸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난타는 부처님을 매우 존경했지만 가난하였기 때문에 아무 공양도 올릴 수가 없었다.

코살라국의 아자타삿투 왕과 고위 관료, 그리고 많은 이들이 부처님과 승가 교단에 많은 보시와 공양을 베풀고 있었다.

난타는 생각했다.

'나는 과거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되었으며,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나고도 가난하여 아무런 보시도, 공양도 올릴 수가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 얻은 돈으로도 하루 세끼를 연명하기 급급했다.

난타는 부처님께 조그마한 등불 공양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애써 돈을 모았다. 겨우 1전을 모아 기름 파는 집에 가서 기름을 사고자 했다. 기름 가게 주인은 의아해서 물었다.

"기름 1전은 너무 적어서 쓸 데가 없을 텐데 어디에 쓰려고 하오?"

난타가 자세히 사정을 얘기했더니 기름집 주인은 그녀를 기특하게 여겨 기름을 후하게 주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등불 하나를 만들어서 기원정사로 달려갔다. 기원정사에는 이미 화려하고 큰 등불이 많이 걸려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처님 오신날'에 밝히는 화려한 연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교하면 난타의 등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등불을 기원정사 한 구석에 걸고 나서 서원을 세웠다.

"저는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이 작은 등불 하나만을 부처님께 공양하나이다. 바라옵건대 이 인연 공덕으로 저도 내생에 지혜 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소멸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는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물러났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다. 이날 등불을 지키고 거두어들이는 책임자는 목련존자였다. 그는 동이 트기 전, 등불을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 크고 화려한 등불은 모두 기름이 다하여 꺼져 있는데 난타가 올린 초라한 등불만이 마치 금방 켠 등불처럼 독야청청(獨也靑靑) 빛나고 있었다. 가난한 여인인 난타가 정성스럽게 올린 등불만은 꺼지지 않고 동이 틀 때까지 샛별처럼 빛나고 있던 것이다. 사람들이 손이나 입으로 불어 꺼트리려고 해도 등불을 끌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난타를 불러 그녀에게 장래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라는 수기(授記)를 주셨다. 난타는 수기를 받고 기쁜 나머지 부처님 앞에서 출가하기를 원했다. 부처님께서는 쾌히 승낙하시고 그녀가 비구니가 되도록 허락하시었다.

이 일화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빈자일등(貧者一燈)', '빈여일등(貧女一燈)'이 시사하는 바는 돈이 아닌 '정성'과 '마음'이다. 또 호화로운 등불은 꺼져도 가난한 여인이 올린 초라한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이 일화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일 것이다.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者)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욕한 자일 것이다.

요즘은 금수저, 은수저 등 사치와 허영이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이다. 외형이 좌지우지하는 시대이다. 진실은 여간해서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은 통한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설두가 말하는 덕산 '示衆'은?



격절록 강설

⑥ 덕산시중화 평창 4

[評唱 4] 雪竇一似古人 先拈他兩人語道 "此二老宿 雖善裁長補短 捨重從輕" 且道 甚麼處是裁長補短處 什麼處是捨重從輕處. 此兩箇分明點檢德山. 雪竇拈來 為甚麼却道 "要見德山 亦未可" 雪竇後面也 只要見德山 這些子也難. 後來人便邪解道 "法眼圓明 只是裁長補短 捨重從輕" 只管作露布 有什麼交涉.雪竇拈道 "德山似箇什麼 如闍外將軍相似 有威有權 為他有箇劒 當斷不斷時 也不招其亂" 雪竇如此拈也 有錯會者不少.

설두는 마치 고인(古人)과 같아서 먼저 두 사람의 말을 염(拈)해서 말하기를 "이 두 노숙(老宿)이 비록 긴 것을 재단해서 짧은 것을 보완하고, 무거운 것은 버리고 가벼운 것을 따르는 것을 잘했다"고 했다.

자, 말해보라! 어디가 긴 것을 재단해서 짧은 것을 보완한 곳이며, 어디가 무거운 것을 버리고 가벼운 것을 따른 곳인가?

이 두 마디 말은 분명 덕산을 점검한 것인데, 설두는 염하면서 어째서 도리어 "덕산을 보고자 했지만 역시 보지 못했다"고 했는가? 설두가 뒤에서 다만 덕산을 보고자 했다는 이것이 조금 난해하다. (그런데) 뒷사람들이 그릇되게 알고 말하기를 "법안과 원명이 다만 긴 것을 재단해서 짧은 것을 보완하고, 무거운 것을 버리고 가벼운 것을 따랐을 뿐이다"고 단지 주장(露布, 일반에게 널리 퍼뜨림)할 뿐이니,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설두가 염해서 말했다.

"덕산이 어떤 사람과 같은가? 마치 변방의 장군과 같아서 위엄도 있고 권위도 있다. 그에게는 하나의 검이 있는데, 마땅히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아도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검이다."

설두가 이렇게 염(拈)을 했는데도, 역시 잘못 알고 있는 이가 적지 않다.

雪竇前面拈了 為什麼又拈道 "諸人要識新羅僧麼 只是撞著露柱底瞎漢" 諸人且道 什麼處是 這僧瞎處. 人多情解道 "等他德山道 你是什麼處人 當時便以坐具劈面摑" 癡人若如此 德山便放你也. 且道 畢竟什麼處是這僧瞎處 師便打.

설두는 앞에서 염(拈)을 마쳤는데, 어째서 또 염해서 말하기를 "대중은 신라 스님을 알고자 하는가? 단지 노주에 부딪친 눈 먼 놈이다"고 했는가? 자, 모두들 말해보라! 어디가 이 스님이 눈 먼 곳인가? 사람들이 많이들 정식(情識)으로 이해해서 말하기를 "저 덕산이 '그대는 어디서 온 사람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좌구(坐具)를 정면으로 던져버렸어야 했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만약 이와 같이 했다면 덕산은 누구라도 바로 놓아줬을 것이다.

자, 말해보라! 필경 어디가 이 스님이 눈 먼 곳인가?

선사가 (선상을) 쳤다.

※선문염송집의 덕산시중화에 대한 원오의 송(頌)을 소개하며 1칙을 모두 마친다.

대장장이(大冶)가 금을 불리는데 / 홀연히 번개가 쳐, 봄을 놀라게 하네. / 초목엔 빼어나게 싹이 트고 / 찬란한 빛은 나날이 새롭네./ 털 끝 만큼의 힘도 쓰질 않고 / 천하의 기린을 잡아 / 온전한 위엄으로 죽이고 살리기를 자재하니,/ 천고에 눈부시게 빛나 달(氷輪, 달의 異名)과 같네.

말이 두 개의 말뚝이 되어도 말에 안목(眼)은 살아있고 / 용두사미가 되었지만,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깨우치네. / 기둥에 부딪친 눈 먼 납승, / 목구멍이 막혀 숨도 내쉬지 못하네. / 머뭇거리며 찾으면 만산(萬山, 첩첩이 둘러싸인 산) 만큼이나 벌어지니, / 웃고 우는 혀끝이 삼천리로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⑥ 믿음 편 6

소원에서 서원, 행원으로

언젠가 개신교를 믿다가 불교로 개종한 젊은 여성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 교회를 다닐 때는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만 하면 됐는데, 절에서는 모든 것은 자기가 지은 것이니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뜩이나 직장과 육아,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든 일이 많아 의지할 곳이 절실한데, 불교에서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니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이었다.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불교가 아무리 자기성찰의 종교, 자력신앙의 체계라 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기복의 힘을 통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의 기본적 기능이다. 물론 소원을 비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원(所願)에서 서원(誓願), 행원(行願)으로 숙성되어야 삶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종교인들은 대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질적으로 성장시켰다.

소원은 말 그대로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라는 구조로 되어있다. 어린 시절 절이나 성당에 가서 부처님이나 하느님께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각종 시험의 합격이나 사업의 번창, 가족의 건강 등을 위해 소원을 비는 행위 역시 이런 구조다. 이러한 기복이 종교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이라는 점에서, 무언가를 바라는 소원은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신앙은 소원에서 멈추지 않는다. 기복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구조로 되어있다. 즉, 무언가를 '~해주세요.'보다는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더 중시한다는 뜻이다. 조금 과격하게 말한다면 불교는 소원을 비는 종교가 아니라 서원을 세우는 종교라 할 수 있다. 불교의식을 마치면서 행하는 사홍서원(四弘誓願)이 '중생을 건지고 번뇌를 끊으며, 법문을 배워 불도를 이루겠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할 것이다.

소원에서 서원으로의 전환은 종교적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다. 기도의 내용과 질 또한 달라진다. 소원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라면, 서원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굳은 다짐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신앙은 서원에 이르러 비로소 어린 아이의 단계를 벗어날 수 있다. 각자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겠다는 발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이러한 서원은 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 삶의 지표를 세운다는 점에서 '청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교신앙은 서원에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서원도 수없이 다지고 다져야 더욱 단단해지고 힘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지고 다졌다 해도 현실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다. 땅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모두가 잘 자라는 것은 아니다. 거름도 주고 김도 매주어야 잘 자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세운 서원이 현실에서 잘 실천되지 않으면, 참회와 발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서원은 더욱 굳건해지고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서원을 바탕으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것이 행원이다. 행원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종교적 삶이 익었다고 할 수 있다. 〈화엄경〉의 결론이라 불리는 〈보현행원품〉은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다루고 있는 경전으로서 실천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중생들을 향한 회향(廻向)으로 마무리되는 보현행원은 불교신앙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행원은 어린 아이와 청년의 과정을 거쳐 한층 성숙된 '어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신앙이 기복의 차원에 머무르는 한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인격(人格)에서 불격(佛格)으로 전환은 소원이 아니라, 서원과 행원을 통해서 완성된다.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제1기

불교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불교대학원에서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각단 불교의식 과정(초급) | 6개월

범음범패 과정(중급) | 1년

교육안내 6개월 과정 수료 후 수료증, 1년 과정 졸업 후 법사 호품수증서를 수여해 드립니다.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 초발심자경문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모집안내 문 의 : 055-342-3679 / 010-4940-8979 / 교육원 010-9326-6071

- 모집대상 : 스님 및 출가예정자, 재가자, 사찰운영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개강일시 : 2019년 3월 9일 (토) 오후 2시
- 수업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장 소 :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경남 김해시 진례면 평지길 299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고즈넉한 산사에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껴보세요.
불모산 관음정사 템플스테이와 함께 하세요.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묘각 합장